

# 백화점 가을 정기세일 돌입...연휴 매출 상승 노린다

유통업계, 추석·폭염에 매출 급등...징검다리 연휴 고객 잡기 분주  
광주신세계, 17개 의류 브랜드 반값...롯데백화점, 할인·증정 이벤트

광주 소재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은 오는 10월 초 연휴 기간에도 적극적인 고객 유치를 위해 27일부터 일제히 가을 정기세일에 나선다. 지난달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과 잇따른 폭염에 따른 백강스 용품,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대폭 성장한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주요 23개 유통업체 매출은 15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3개사, 대형마트 3개사, 편의점 3개사, 준대규모점포 4개사, 온라인 유통업체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온라인 유통업의 확산 및 고물가로 인해 부진을 면치 못했던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큰 폭으로 신장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장기간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이스크림·음료 수요와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에 힘입어 전년 대비 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6.7% 올라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형마트(5.9% ↑), 편의점(4.5% ↑), 백화점(4.4% ↑) 순이었다.

상품별로 보면 식품이 8.7% 올랐고, 서비스·기타(4.3% ↑), 아동·스포츠(3.3% ↑), 생활·가정

(0.8% ↑) 패션·잡화(0.2% ↑) 등 대부분 항목이 신장했지만, 가전·문화 매출은 6.2% 하락했다.

이같은 신장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광주 소재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가을맞이 정기세일을 진행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개천절(10월 3일)과 연계한 이른바 '풍당풍당 연휴' 기간 고객들의 발걸음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우선 광주신세계는 오는 27일부터 가을 정기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류, 신발, 리빙 등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신백패스타'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본관 5층에서는 17개 유명 의류 브랜드가 최대 반값 할인판매에 나선다. '프로젝트M'은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리스트'와 '폴햄'에서는 30~50%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옷들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게스트진'과 '써스데이아일랜드'는 30%, '온앤온'과 'JJ고스트'는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광주신세계 지하 1층 '신백패스타'에는 참여하는 브랜드들 역시 의류와 신발 일부 품목에 대해 10~20% 할인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오는 27일부터 '슈퍼스타일'을 테마로 가을 정기세일을 열고, 할인 및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 광주점은 오는 10월 1일



2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선정한 가을을 맞아 아웃도어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오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9층 행사장에서 '가을상품 대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을 산행 및 니들이에 적합한 아웃도어 브랜드 상품들을 대상으로 할인 및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부터 10월 9일까지 패션·잡화·스포츠 단일 브랜드에서 30~60·100만원 이상 구매 시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며, 일부 브랜드에서 롯데백화점 제휴 현대카드 30~60·100만원 이상 구매 시

구매금액의 15% 상당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F&B(식·음료) 매장

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사용 가능한 5000원 할인권을 선착순 제공한다. 이 밖에도 혼수를 마련하는 예비부부들이 구매 물품에 대한 웨딩 마일리지

## 광주신세계 "가을 F/W 신상 이너웨어 먼저 만나보세요"

30일~10월 6일 최대 20% 할인

광주신세계가 이너웨어 및 의류 생산·유통 전문 기업 '코튼클럽'과 손잡고 '2024년 가을 신상품 할인전'을 진행한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본관 지하 1층에서 '트라이업프', '엘르', '게스' 등 이너웨어 인기 브랜드와 '코데즈컴바인' 의류 등의 할인전을 펼친다.

각 브랜드에서는 여성용 브라와 팬티, 남성용 드로즈, 드로즈 패키지 등을 기존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캐주얼 브랜드 코데즈컴바인 가을 신상 의류들도 선보인다.

특히 코데즈컴바인에서는 가을맞이 점퍼와 원피스, 니트, 스커트 등 올 가을 의류 신상품 전품목에 대해 20% 할인 판매한다. 더불어 자켓 등 10개 품목을 5만원 균일가에 선보이는 행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선보이는 이너웨어와 의류 등은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는 만큼, 조기 품절될 수 있다.

광주신세계는 행사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행사도 준비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는 '코튼클럽 할



인전'에서는 매일 정오와 오후 5시에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파자마 세트(1명), 장우산 세트(3명), 핸드크림(4명), 비건 체합팩(5명), 풋커버(7명), 마스크(80명)를 증정한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폭

염이 끝난 뒤 선선한 가을을 맞아 24년 F/W 신상 품 의류 및 이너웨어 할인전을 기획했다"며 "이번 기회에 광주신세계를 방문해 유명 의류 브랜드를 한 곳에서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이마트 어메이징 텔리 2탄...더블버거 2980원

블랙통치킨 버거·허니빙봉 등

이마트 광주점이 고물가로 인한 외식물가 상승 추세에 초저가 텔리 상품을 신규 출시하는 등 고객 잡기에 나선다.

이마트 광주점은 25일 '어메이징 텔리' 2탄 라인을 공개했다. 저렴한 가격과 대중의 입맛에 맞춘 가성비 제품으로, 광주점은 지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오는 26일부터 '어메이징 더블더블 버거'를 1개 2980원의 가격에 선보인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더블 버거 가격의 반값 수준이다.

어메이징 더블더블 버거는 패티와 치즈를 두 장씩 넣은 더블 타입의 버거로, 국산패티와 치즈, 그릴드 어니언에 특제 바비큐 소스를 넣은 것이 특징이다.

광주점에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판매하며,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도 오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어 오징어 먹물빵에 두툽한 국내산 치킨 패티를 첨가한 '어메이징 블랙통치킨 버거' 역시 1개 당 3480원에 선보인다.

또 '어메이징 허니빙봉'은 3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치킨 제품으로, 시중 치킨 가격 대비 절반 수



준인 9980원에 판매한다. 황윤기 이마트 상품본부장은 "단순 가성비로만 주목받았던 대형마트 텔리가 가격은 물론, 맛까지 견비하는 등 발전을 거듭해 오프라인 유통의 차별점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마트는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총동원하는 등 신상품을 선보이고, 본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메이징 텔리' 시리즈는 이마트가 저렴한 가격, 풍부한 양, 맛 등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스타상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성비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